

**울산 재수 합격 수기 (공부기간 : 1년 5개월)**

1차 점수: 교육학 18.67  
 전공 50  
 (컷 64 총점 68.67 +4.67)

2차 점수: 미술실기 23.49  
 심층면접 36.73  
 수업실연 18.23  
 학습지도안 9.1  
 (컷 151.77 총점 156.22 +4.45)

**저의 상황: 울산 거주, 인강생**

초등학생 형제의 엄마로 40대 ^^ (양육, 집안일 병행)  
 2018년 8월 대학원 졸업 후 공부 시작  
 (2018년 7월 공부시작 5개월 공부 후 2019년 임용시험- 1차 탈락  
 2019년 1월 공부시작 1년 공부 2020년 임용시험 (재수)- 최종 합격)



자트영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합격수기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합격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느끼기에, 미술 임용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상황과 자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둘째, 임용 시험에 대해 파악하기!**

**셋째,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넷째. 흔들리지 않는 자신에 대한 믿음!**

위의 네 가지와 이를 **끊임없는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임용시험 합격에 빨리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신의 상황과 자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자신의 공부 상황, 체력, 자신의 장점, 보완점 객관적으로 파악

저는 이 시험에 앞서, 먼저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 집안행사 참여 등을 해야 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직강이 아닌 인강으로 공부하며, 일요일 오후를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공부하고 일요일 오후는 쉬었습니다. 시간활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자 했고, 인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강 진도를 밀리지 않기 위해 스테디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저는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꾸준히 수영이나 헬스로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1~4월까지의 내가 언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나에게 맞는 스테디가 맞는 것인지 등 공부방법도 확인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언제, 공부시간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을 파악하여 자신의 시간 계획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타이트한 시간계획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한 달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3타임(오전, 오후, 저녁)으로 시간을 나눠 하루에 공부할 양을 정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장점과 보완할 점을 알아야 합니다. 장지연선생님과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 후에 5개월간 공부할 때(1918년 공부 시), 이론을 이해하기 보다는 밀린 1년 패키지수업을 듣는데 급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공부 기간과 기본 이론이 튼튼하지 못해 초수 때는 1차 불합격(전공 과락)하였습니다.

◆장지연 선생님과 상담 시, 자신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상담을 받고 합격을 위해 자신의 단점과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분명 합격할 수 있습니다.

-1~4월까지 자신의 공부 성향 파악하기

-인강 /월요일~일요일 오전까지 공부(일요일 오후부터 휴식)

-9월까지 하루 7~8시간 (10월 이후 하루 8~10시간)

-독서실에서 11시 귀가(충분한 수면)/ 일주일 3~4번 1시간 수영 및 헬스 (장기전을 위한 체력관리)

-부실한 기본기, 약한 암기력 →정확한 이론의 이해, 반복적 인출, 포스트 및 활용

★둘째, 임용 시험에 대해 파악하기!

-미술 임용시험 = 이론의 이해 + 이론의 암기+ 이론의 적용

-상대 평가 시험→ 다른 사람의 답지를 보고 배우기

미술 임용 시험은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암기해야 하며,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기 보다는 이론을 내 머릿속에 넣어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서 시험 전날까지 기본 이론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론에 대한 이해도 빠른 편이었고, 5~6월 강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회독하니 문제의 취지를 파악하고 이론을 적용할 수 있어 적용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저의 문제는 암기력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는 스터디원에 비해 저는 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암기를 위해서 이론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회독·인출(구두인출/백지쓰기)했으며, 포스트잇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누워서 오늘 공부한 것을 인출했습니다.

미술 임용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시험입니다. 제가 인강으로 공부하면서 답답한 것이 고득점을 받는 사람의 답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답지에 의해 자신의 등수가 정해지고 합격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그래서 위상선생님께 부탁하여 5월에 한번, 7월에 한번 대구로 청강을 가서 다른 사람들의 답지를 보고 키워드는 적는 형식, 문장 길이, 문장 형식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어야 4점을 다 받을 수 있는지, 키워드를 적되 어디까지 적는 것이 효과적인지, 어느 부분에서 감점이 많은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장지연선생님이나 위상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의 답지를 채점하는 과정과 다른 사람들의 답지를 보는 것이 답안작성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위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강사들의 모고문제나,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을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상선생님이 강조하셨듯이,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11월에도 이론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인출하였습니다.

-이론의 이해: 네이버 검색 및 참고자료, 필독서 확인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만 확인)

-이론의 암기: 인출 스터디 활용

구두 인출 및 백지쓰기 (먼저 큰 흐름 파악→키워드→중요 내용 암기)

자기 전 누워서 오늘 공부한 내용 인출하기

포스트 잇 활용

-상대 평가 시험→ 다른 사람들의 답안과 질문 참고하기

★셋째,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①스터디 활용하기 (좋은 스터디원을 만난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인강으로 공부하였기에, 스터디를 활용하여 전공미술 인강 진도를 미루지 않고 들었으며, 스터디를 활용하여 그 전주에 배운 내용을 서로 질문-대답하며 인출하였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공부계획을 고려하여 스터디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음이 맞다면 서로 믿고 격려하며 함께 힘든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교육학 인출 스터디	2월~9월	주 2회, 1시간씩	영역별로 나누어 질문-대답
위상 전공 복습 인출 스터디	2월~11월 (시험치기 직전까지)	주 1회, 1시간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도에 맞게 전주 내용을 질문-대답</li> <li>• 서로 모르는 내용 함께 공부</li> <li>• 10월 이후 5~6월, 7~8월 회독도 병행하여 질문-대답</li> </ul>
표현 인출 스터디	6월~10월	주 2회, 1시간씩	표현 영역별로 순서대로 질문-대답
교육과정 인출 스터디	7월~10월	월~금, 20분씩	교육과정을 순서대로 인출

-기본 이론서: 10회독 이상

-심화 이론서: 5회독 이상

-5~6월/7~8월: 4회독

-9~11월 모고: 2회독

(정독한 회독 수이며, 중요도 상 수준으로 회독한 것은 위의 회독수보다 많습니다.)

②한달 스케줄러 사용하기

한 시간씩 쪼개거나, 너무 타이트한 계획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 3부분으로 나누어 공부할 양을 계획했습니다. 또한 일주일 중 하루의 오전을 계획상 하지 못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루에 무엇을 공부할지는 장지연선생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진행했습니다. (영역을 쪼개어 공부하기 보다는 월요일은 미술교육(미학), 화요일은 서미, 수요일은 동양미술사와 한국회화사, 목요일은 공예, 한국조형사, 금요일은 디자인 및 표현. 토요일은 전공 인강, 일요일은 교육학 인강으로 크게 나누어 깊이 있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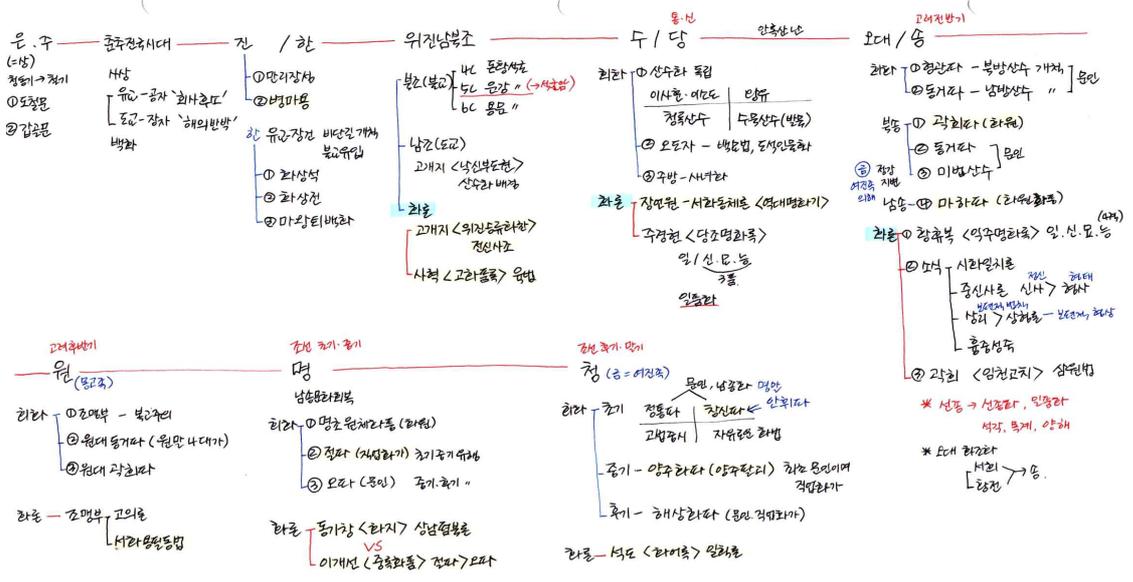
오전 (3시간)  
점심  
오후 (2~3시간)  
운동  
저녁 및 집안일  
저녁 (3시간)

### ③ 단권화는 하지 않고, 구조화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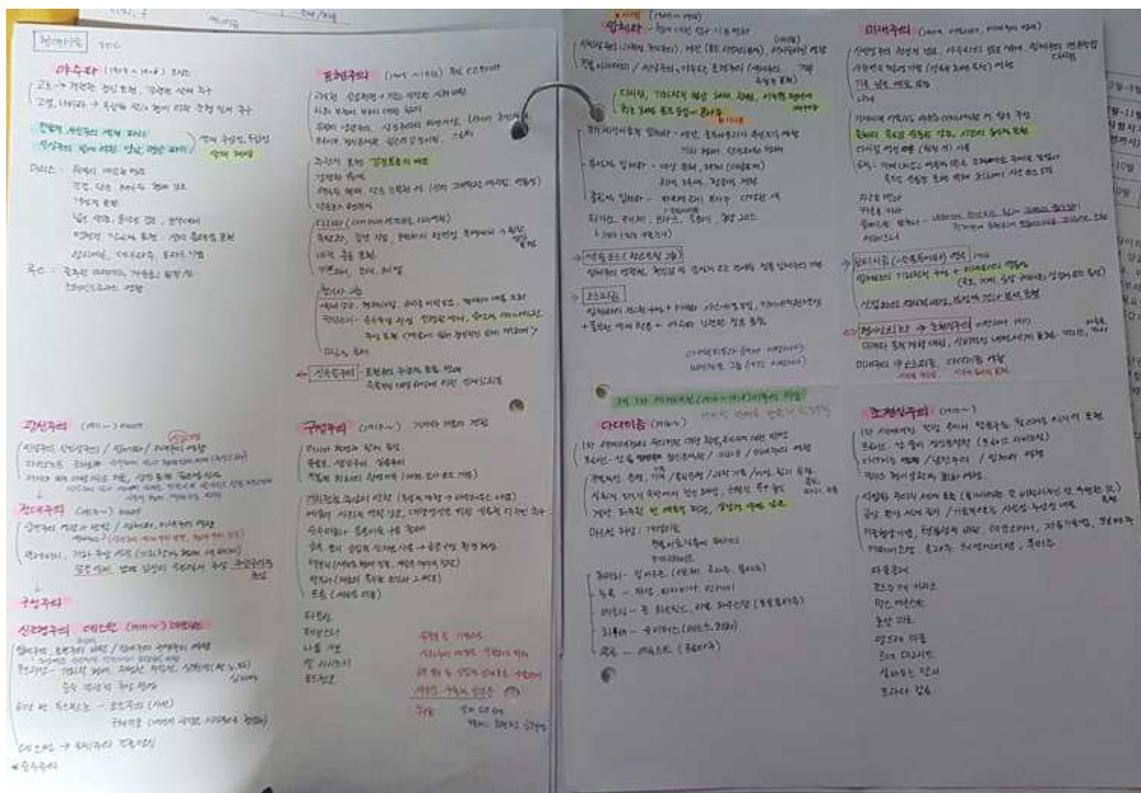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단권화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심화이론 각 영역에 기출분석, 7~8월 영역별 문제를 묶어서 공부할 때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구조화하여 이해가 쉽도록 했습니다. 표현파트는 영역별로 구조화하였고, 디자인이나 등미, 서미 같은 경우는 흐름에 맞도록 하여 구조화하였습니다. 구조화를 하면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표현 영역의 경우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취지 파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출, 중요부분은 형광펜)

자신이 직접 공부하며 만들어야 흐름이나 맥락이 이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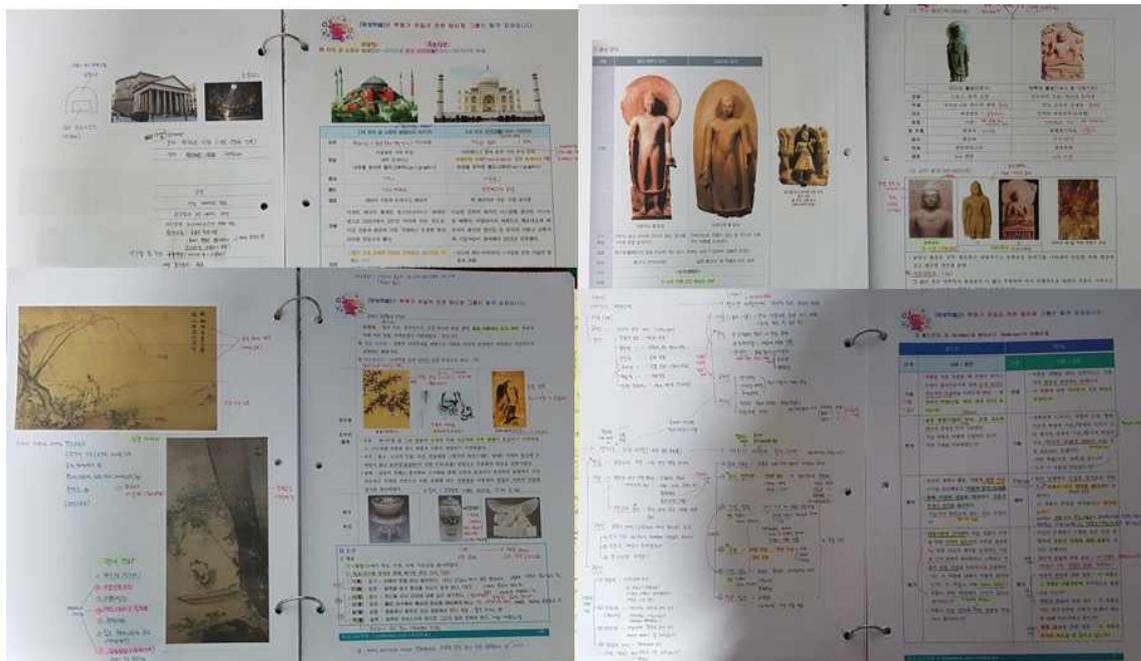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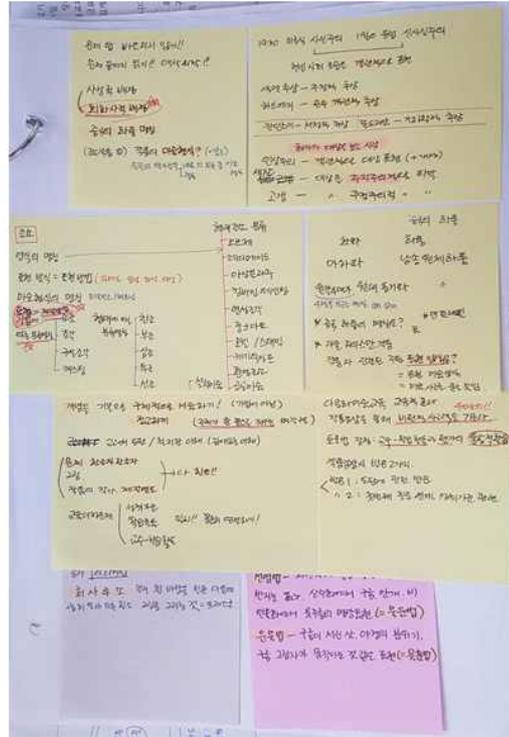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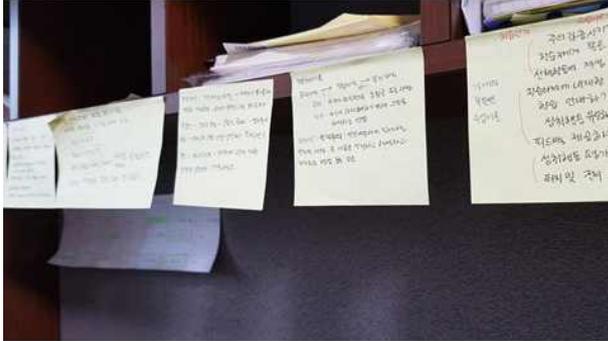
④도판 및 비교 분석하기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 (표현기법이나 구도, 특징) 작품(도판)을 크게 뽑아서 확인했으며, 특징들을 비교 분석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참고하여 공부하였습니다.



⑤포스트잇 활용하기

저는 제가 생활하는 공간(책상, 문, 싱크대, 냉장고 등)에 포스트잇을 붙여, 암기가 되지 않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로 노트를 만들어 암기가 되지 않는 것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보고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이것을 들고 가서,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나 암기가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흔들리지 않는 자신에 대한 믿음!

이 시험은 공부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불안감과 싸워야 하는지 해보지 않은 사람을 모를 것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계속 오르지 않고 제자리인 사람,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사람 역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정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에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저 역시 계속되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수험생활의 힘듦으로 독서실에서 평평 운 적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공부가 힘들지만, 꼭 합격하고 말 것이라는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은 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1월초에는 '반드시 수석하겠다'라고, 12월에는 '내가 문을 닫고 서라도 들어가겠다.'라고, 그리고 공부하는 내내 '나는 꼭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매일매일 되뇌이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합격하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